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18
2016.0304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커버스토리

필리핀 민다나오 섬 마놀로 풀티치 군 키한아이 마을에 드디어 학교가 생겼습니다. 준공식이 열리던 날, 지난 한 해 JTS와 함께 학교 건축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더 밝습니다.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02 인도인 부서 책임자들의 첫 회의



P08 킬라올라오에 건축된 교사 숙소 전경



P20 저체중아 지원을 위해 몸무게를 재는 아이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등게스와리(인도)
우리가 인도JTS 팀장이예요 - 보광
- 08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오정심



국내소식

- 14 함께 나누는 사랑
안산 다문화센터의 주말 풍경 - 이영실
- 15 함께하는 사람들
덕양 지부의 첫 거리모금 - 최애자



활동터소식

- 17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23 후원인의 소리
- 24 나눔회원소식
2015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 / 특별후원금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날 2016. 4. 4 퍼넬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희선, 권지연, 임양호,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김명순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인도인 팀장들과의 첫 회의



“수자타아카데미도 홀리를 맞이하고,
새로운 4월의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인도는 우기와 건기, 여름과 겨울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길고, 겨울은 짧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2월~3월, 11월~12월은 우리나라의 봄날, 가을날처럼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제, 방갈라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어 흥길을 따라 걷는데, 전정각산이 온통 주황색 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에 붉게 익은 감이 조롱조롱 달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주황색 꽃이 전정각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니 이제 봄인가 하면, 한낮에는 여름날처럼 햇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름인가 하면, 사방에 떨어져 있는 보리수잎 때문에 가을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한꺼번에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기후와 문화가 다르니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고 재미 있습니다.

우리 설날은 보통 2월인데, 인도는 우리의 설날과 같은 명절인 “홀리”가 3월에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잎이 떨어졌던 나무에도 새잎이 돌아옵니다. 4월부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됩니다. 수자타아카데미도 홀리를 맞이하고, 새로운 4월의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각 팀의 팀장이 된 인도인 스태프들은 할 일이 많아 “시스템,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며 저에게 호소하곤 합니다. 여태껏 팀원으로서 팀장이 시키는 업무를 하다가 책임자가 되고 보니,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실수에 대해서 지적도 받게 되니까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우리가 인도JTS 팀장이에요 - 인도인 스태프 활동 이야기

오늘 인도 날씨는 시원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더니, 어제 종일 비가 내린 후 시원해졌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처음 내린 비 덕분에, 땅이 촉촉하게 생명을 얻고 산들바람은 상쾌하기만 합니다. 온통 먼지투성이던 세상이 깨끗하고 맑게 빛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보광 사무국장

“쁘리양카 교장 선생님이 인도JTS 실무 총괄을 겸직하고, 인도인 스태프들이 각각 하나씩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법륜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인도JTS의 전체 사업을 둘러보시고는, “원래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인도인들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 여러분들이 책임을 맡아도 될 정도로 잘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연습 삼아 한번 해 봅시다. 여태껏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다 책임을 맡고 운영을 했는데, 닥터 뿌리양카지도 오고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맡아서 신나게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전체 총괄을 맡되,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이 인도JTS 실무 총괄을 겸직하고, 인도인 스태프들이 각각 하나씩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도인 스태프인 인드라짓 씨가 교육 부분을, 삼부 씨가 병원 업무를, 파완 씨가 마을개발 부서를 맡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스태프 10명은 모두 수자타아카데미 출신으로, 각자 JTS와 20년 이상의 인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담당하는 아자이 씨는 4살 때부터 수자타아카데미에 매일 놀러 왔다가 ‘꼬맹이가 걷기엔 먼 마을인 방갈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다’고 법륜스님에게 개근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자이 씨가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며 웃는데, 옆에 있던 파완 씨도 4살 때 수자타아카데미에 놀러 왔다가 법륜스님께서 주시는 빵튀기를 얻어먹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있다며 같이 웃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모두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JTS의 지원금으로 다녔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수자타아카데미로 돌아와 실무 책임을 지는 스태프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원만해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드라짓 씨는 올해 30살입니다. 인도JTS의 세 부서 중 살림이 제일 큰 교육 부서의 책임자인 인드라짓 씨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유치원 1,000명, 초등학생 370명, 중학생 60명을 데리고 학교를 운영해야 하고, 교사들 수업 배정까지 해야 하다 보니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4



교육팀 스태프들. 맨 오른쪽이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인드라짓 씨

월부터는 전체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웃는 얼굴인 인드라짓 씨를 스태프들은 어설피 발음의 한국어로 “교감 선생님, 우리 교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늦습니다. 지각도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고 책임감도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팀 팀장으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법륜 이사장님이 “책임자가 늦으면 다른 구성원들도 다 따라 배웁니다. 앞으로 안 늦고 잘할 수 있겠어요? 팀장 맡아서 할 수 있어요?”하고 물었더니, 다른 팀장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 삼부 씨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다. 한국인 스태프 밑에서 일할 때는 수동적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어떻게 하면 약 낭비를 줄이고 약값을 절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병원 내 약방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약값을 조사하고, 그래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고민을 적은 수첩을 들고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의논합니다.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체중아 지원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는 병원팀장 삼부 씨

“인도사업은 인도인들이 해야, 한국인들은 또 다른 나라, 여기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가서 일하지.” 하셨던 법륜 이사장님의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 개발팀의 파완 씨는 재작년까지 수자타아카데미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잘 알고, 작은 업무도 잘 챙기는 스타일이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편입니다. 바브랄 씨와 아룬 씨, 그리고 한국인 스태프들이 도와서 일을 하지만, 마을 개발팀도 업무가 매우 많습니다. 매일 일감을 주고 관리해야 하는 건축부 노동자들만도 22명이나 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리더들과 회의를 해서 마을 지원사업도 해야 하고, 학생들 밥도 해 먹여야 하며, 마을 여성들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인 짜르카(물레)와 재봉반도 운영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눈 아래 다크써클이 생긴 모습으로 찾아와 서툰 한국어로 “시스터, 일이 정말 많아요.”라며 어리광스럽게 말을 걸고는 합니다.

현지인 스태프가 책임자로 임명된 지 한 달 후 토요일, 스태프 워크숍을 열어 그동안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마을 개발팀 스태프 아룬 씨가 “아직 저희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바로바로 소통된다는 것이 전과 비교했을 때 참 좋습니다. 전에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사하고 직접 책임을 져야 하니깐 어렵지만,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디깃 네히해(문제없습니다).”



마을 개발팀 스태프들. 맨 왼쪽이 파완 팀장

그 누구보다 바빴던 사람은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입니다.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은 작년 3월, 8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에서 7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8년간 한국에서 한국어와 불교를 공부하여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인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일을 보면 몸이 축나는지 생각지도 않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하면 스태프들이 힘들다며 제가 옆에서 잔소리하곤 한답니다.

작년 3월, 이사장님께서 학생들 출석률이 왜 이리 낮냐고 물었을 때, 당시 학교 담당자가 “도저히 70%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맡고 1년이 지난 요즘, 학생들의 출석률은 90%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100%일 때도 있고, 93%에서 98% 사이를 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불가능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장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JTS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이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하곤 합니다. 그녀가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상층 계급인 브라만이면서도 천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녀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의 선생님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고 아이들과 함께 빨래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를 운영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학교 여학생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뿌리양카 교장 선생님

이제 막 힌디어(인도 공용어)를 배워 가면서 더듬더듬 겨우 소통하는 한국인 스태프와 달리, 전체 총괄 책임자와 각 부서 팀장들이 확실하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많은 일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도인 스태프 팀장들은 처음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고, 매주 있는 팀장회의에 들어가기 위한 주간 보고서를 만들고, 부서별 주례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직접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약을 짓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도사업은 인도인들이 해야, 한국인들은 또 다른 나라, 여기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가서 일하지.” 하셨던 법륜 이사장님의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도JTS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봉사하는 우리 인도인 스태프들이 척박한 동게스와리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킬라올라오 교사 숙소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다물록 교사 숙소, 화장실 건축 사업

다물록(Damulog)은 JTS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JTS는 2008년부터 다물록 군과 협력하여 플랑이(Pulangi) 강과 물리타(Muleta) 강 지역의 오지마을 13곳에 학교를 건축하였다. 2012년에는 KOICA의 지원을 받은 다물록 프로젝트를 통해 마카파리(Macapari) 고등학교와 군 보건소 산후조리원, 결핵 검사소 신축과 의료장비 지원, 군 묘목장과 묘목장의 상수 시스템 건축, 다물록 3개 마을 곡식 건조장 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오정심 활동가

2015년 봄에는 다물록 학교 13곳에 문구류와 교복을 지원하면서 각 학교의 시설 상태 조사도 병행하였다. 이들 중 4개 학교에 주민회의를 거쳐 교사 숙소와 학교 화장실을 짓고 기존 건물 보수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사 숙소는 세미 콘크리트 구조로 짓고 학교 화장실은 남녀 각 1칸과 세면장을 만들기로 하였다. 학교 건물은 교실 방음을 위한 천장 설치, 중간 벽과 문 설치, 교실바닥 수리, 칠판 제작과 외벽 페인트칠을하기로 하였다.

JTS에서 자재를 지원하고 다물록 군청에서 '푸드 포 워크(노동의 대가로 음식을 지급하는 참여촉진 방식)'를 지급하며 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11월에 자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학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 사정도 달라 시작 시기부터 차이가 생겼다. 강을 통해 자재를 배송하는 아폴란과 타퓨난은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야 가능하고, 흙길을 달려야 하는 킬라올라오와 인라보는 날씨가 맑아 길이 말라야 해서 출장 때마다 희비가 교차했다. 2016년 1월 29일, 인라보 학교는 교사 숙소가, 킬라올라오 학교는 교사 숙소와 화장실, 학교 보수가 완공되어 기증식을 하였다.

인라보 -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옥수수가 심어진 언덕들이 이어진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한 시간 이상 차를 달리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인라보 학교를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눈이 닿는 모든 곳이 농사를 짓는 곳이지만, 처음 이곳을 다닐 때는 온통 코곤 그라스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플랑이 강에서 1km정도 떨어진 인라보는 외진 지역으로, 2012년까지만 해도 NPA(신인민해방군) 군대가 '혁명세금'을 거두고 신병을 모집하고 정부군과 교전하던 곳으로, 아직도 정부군 초소가 남아 있었다. 다물록 군의 평화질서 정책으로 마을에 길이 나고 전기가 공급되었고, JTS가 지원한 학교가 생기면서 마을의 평화와 발전을 향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3년 완공된 인라보 학교는 프라이머리(Primary) 과정으로 4학년까지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5,6학년은 3.5km정도 떨어진 땅꿀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2015년 JTS 활동가들이 방문하였을 때, 다물록 군에서 지원하는 세 명의 젊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사 숙소가 없어 남자 교사는 교실 의자에서 자고, 여자 교사들은 다른 교실 내에 천을 둘러 만든 가림막 안에서 종이 상자를 깔고 자고 있었다. 부엌은 교실 밖에 조그만 틀에 솥을 걸고 학교 건물 뒤로는 빨랫줄을 달아 쓰고 있었다.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도 교사들은 점심을 거르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걱정하였고, 가르치는 걸 행복해하면서 지역사회에도 이바지하고 싶어 했다.

9월 10일 건축 의사를 묻는 회의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사 숙소를 짓는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물록 군과 JTS가 지원하면 목재를 구하고 강에서 모래 자갈을 날라 집을 짓는 일은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고 역할을 나누었다. 가가와드(면 단위 행정구역 의원) 코메로스 씨가 건축 책임자가 되었다. 시설점검 과정에서 교실은 두 칸인데 학생과 교사가 늘어 유치원 과정 아이들은 교실 밖에 책상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교사들은 한 교실에서 다른 교사를 마주 보고 수업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세 명의 교사가 각자의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게 교실 칸막이를 하고 문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다물록 지역은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비가 오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수업이 어렵다는 교사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천장에 합판을 대서 빗소리를 막고 옆 교실의 소리도 막아보기로 했다. 목재의 조기 노후를 막기 위해 학교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낡은 칠판을 교체하는 작업도 추가되었다.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위생교육도 진행하기 위해 남녀 한 칸씩과 세면장이 있는 화장실도 짓기로 했다.

인라보의 가가와드 알로바 씨는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모래 자갈을 나르고 추가 자재도 실어 날라 주면서 “교사들을 위한 집이 꼭 필요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인라보는 10월 초 주민회의를 하고 네 학교 중 가장 먼저 부지 정비를 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또 어찌나 단단한 목재를 준비했는지 못이 안 들어갈 정도여서, 기초를 만들 때는 콘크리트용 못으로 다시 준비하기도 했다.

인라보는 언덕이 많은 지역에 있는 곳이라 도로가 있어도 비가 오고 나면 사나흘은 트럭이 다니기 어려워 자재 배송 일정이 미뤄지는 일도 있었지만, 11월 중순 1차 자재가 들어간 이후 매번 방문할 때마다 착실히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사 숙소 건축이 마무리되는 즈음 방문하였을 때 마스크를 하고 눈만 내놓은 한 참가자가 정말 열심히 아마칸(대나무를 얇게 벗겨 엮은 것) 벽에 니스칠을 하고 있어 누군가 궁금했는데, 교사가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사용할 집을 칠하는 중이었다. 교사 숙소는 주민들과 교사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었다. 교사들이 지역사회와 더 밀착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건물 앞에 예전 참호였던 흙더미를 철거하지 못했는데 중장비 없이 오로지 손으로만 하는 작업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노고를 알 수 있었다.

한동안은 선임목수가 아파서 진행이 느려지기도 했지만, 건축 막바지에는 주민들과 군청, 바랑가이(면 정도의 행정단위)가 힘을 모아 교사 숙소를 완공하여 2016년 1월 말에는 기증식을 할 수 있었다. 다물록 총코 군수와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가 기증식에 참석하였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고 잔치 음식을 나누었다. 농사일이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 학교 일을 돕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즐겁게 일하고 힘을 모으는 인라보 사람들에게서 마을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활동가가 방문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Good Morning, Visitor.”라고 큰 소리로 반겨주고 손을 잡고 이마에 대는 사랑스러운 인사를 하던 인라보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인라보 교사 숙소 기증식

킬라올라오 - 바랑가이와 주민들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교사 숙소와 학교

키바위(Kibawe)를 지나 플랑이 강을 발밑으로 두고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옥수수밭 언덕을 지나면, 마을 가운데 학교가 있는 킬라올라오에 닿을 수 있다. 2013년 다물록 군 학교건축 사업지로 선정되고 미카와안 바랑가이의 전폭적인 지원과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의 조직적인 참여로 4개월 만에 교실 두 칸의 학교가 지어졌다. 마을에 학교가 생기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었다.

9월 11일 주민 의사를 묻는 회의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열의를 보였고 미카와안 바랑가이 캡틴(바랑가이의 리더)이 건축책임자가 되었다. 교사 숙소 목재대금을 논의하는 중에 한 주민이 다른 공사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을 때 캡틴이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짓는 곳에 쓰일 나무다.’라고 상황을 정리해 주니 주민들 모두 동의하였다.

바랑가이에서는 학교 건축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구조 제작에 쓸 물을 길어 나르고 음식과 목수를 지원하였다. 11월 10일 교사 숙소용 자재를 배송하고 기초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은 말을 이용하여 바닥을 고르고 목재를 날랐다. 이를 후에 다물록 군수와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바랑가이의 직원들이 총출동하여 철골 구조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부모회 대표도 늘 현장에서 일하였다. 목수들을 교사 숙소와 학교 시설보수 두 팀으로 나누니 진행이 빨랐다. 그런데 그 후 활동가가 모니터링을 갔을 때 작업의 진전이 없어 확인해 보니, 한동안 마을 곡식 건조장 창고 짓는 곳에 목수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일이 마무리된 후에야 교사 숙소 건축이 재개되었다.

마감 일정을 정하면서 작업은 빨리 진행되었다. 교사는 휴무 중인데도 나와서 칠판 페인트칠을 하고, 열의에 넘친 목수들이 계획에 없던 중간 벽 보수와 교실 내부 페인팅을 하면서 자재가 추가되기도 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고, 교실 방음 천장과 칠판, 교실 외벽 페인트칠도 완료되었다. 칸막이로 만들어진 교실을 위한 문도 설치하였다.



킬라올라오 교사 숙소 기증식

2016년 1월 29일 다물록 총코 군수와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 필리핀 교육부 담당관, JTS가 지원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했다.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여 숙소 밖 젤로시(미늘창)를 통해 구경하였다. 교사들에게 식기류와 분필을 선물하니 좋아하며 활짝 웃으면서, 무엇보다 방음 시설로 다른 교실의 소음이 줄어 정말 좋다고 한다. 킬라올라오는 지역 자치 단체와 마을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이 되고 있었다.



킬라올라오 기증식을 보는 주민들

성과와 과제

교사 숙소가 생기면서 교사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수업을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 기존 학교 시설 보수를 통해 건물의 노후를 방지하고 수업 환경을 개선했으며, 학교 화장실을 만들어 편의성을 높이고 위생 교육도 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건축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오지 마을의 접촉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반면에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학교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사용할 물을 집에서 직접 가져온다고 하지만, 최근 엘니뇨로 인한 건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하는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아폴란(Apolan)과 타푸난(Tapunan)학교의 교사 숙소 건축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JTS와 다물록 군, 학부모들의 희망이 모여 교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평화롭게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안산 다문화센터의 주말 풍경

함께하고 글쓰기 이영실 활동가



한국어 교실 학생들을 위해 김밥을 준비하는 유애경 센터장과 김포에서 오신 김경애 봉사자

JTS 안산 다문화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주말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중국 지린 성 등 농촌 출신의 조선족 이주노동자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을 모르는 이들도 한국어 교실에 출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삶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배움의 귀함을 잊어버린 듯한 우리 학생들의 모습과 강렬하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파주, 수원, 심지어 부산에서 안산 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나오는 봉사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니, 한 자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수업시간을 초과하여 가르치게 된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먼 거리도 마다치 않고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려 오시는 봉사자들과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어 교실 학생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해주시고 센터를 청소해주는 봉사자들, 센터에 꼭 필요한 물품을 선뜻 기부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더욱 탄탄하게 영글어가는 안산 다문화센터의 일상을 전해드립니다.

덕양 지부의 첫 거리모금

함께하고 글쓰기 최애자 활동가



지난해 9월,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JTS 지부가 개설되어서, 좀 더 가깝고 편리하게 지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설된 지 몇 달이 지난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 지부도 처음으로 거리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봉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당당하게 화정역 광장에 책상을 펼치고 반침대에 물을 채워 현수막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등, 서둘지만 차분하게 홍보 부스를 세웠습니다.

모금함을 들고 2인 1조로 짝이 되어 곳곳으로 가서 "천원이면 굶주리는 인도어린이 두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날이 추우니 행인들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기 귀찮은지 대부분 그냥 지나쳐가는데, 엄마가 쥐어 준 천 원짜리 한 장을 들고 달려와서 모금함에 넣는 아이들이 많아서 홍보 부스에는 어느새 훈훈하게 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모금하던 우리도 덩달아 힘이 나서 방긋 웃으며 즐겁게 모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지 20분 정도가 흐르면서 관심을 보이는 행인도 한 분 두 분 늘어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이라도 모아서 넣어주는 학생들과, 아들 같은 군인들의 정성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모금 봉사자들은 모두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인지 가벼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모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인의 길을 막은 건 우리니까 모금을 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법륜 스님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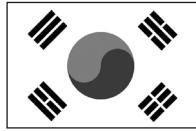
봉사활동 중 가장 어려운 축에 드는 것이 거리모금이라는 봉사자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모금 시작 전에는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막상 현장에 부딪히니 입이 열리고 마음이 훈훈해져서 잘 할 수 있었다는 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거리모금이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1. 한국JTS 2016년 정기 이사회

2월 22일 (사)한국제이티에스의 2016년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 9명 중 7명이 참석, 이사장 법륜스님의 의사 진행으로 2015년도 사업 결과 보고와 결산 보고가 있었고, 2016년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심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안산 다문화센터 개원으로 법인 기본재산이 변동됨에 따른 법인 정관 개정안도 심사했습니다.



2. 한국JTS 2016년 정기 총회

(사)한국제이티에스 정회원 30명 중 24명이 참석한 정기 총회가 2월 28일 경복문경 정도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2015년 사업과 결산 결과가 보고되었고, 2016년도 사업 계획안과 예산 계획안, 정관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총회를 통해 개정된 정관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3월 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3. 2015년 연차보고서 온라인 발행

2015년 JTS의 사업 성과와 결산을 담은 2015년 JTS 연차보고서가 온라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후원회원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2015년도 연차보고서에는 사업별 자금 사용 내용이 더욱 상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2015년도 연차보고서는 JT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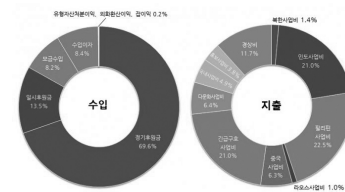
4. 원만성 기금 3차 운영위원회의

인도 동계스파리 의료지원 사업과 안산 다문화센터의 다문화 사업 기금을 지원하는 원만성 기금의 3차 정기 운영위원회의가 2월 24일 운영위원장이 근무하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기금 설립 첫해의 재정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2016년 기금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추가로 인도 동계스파리 지바카 병원에 대한 의료지원단 파견과 안산 다문화센터 한방 의료지원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 인도 및 필리핀 신규 활동가 파견

인도JTS와 필리핀JTS 사업장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1월 27일 총 5명의 신규 활동가 중 3명은 인도로, 2명은 필리핀 민다나오 사업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업무를 인수하고, 앞으로 1년 동안 JTS의 해외사업 현장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존 활동가 10명은 신규 활동가들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1년간의 해외파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6. 결산내역 공시 및 각종 결산 보고

2015년 한 해 동안의 사업과 재정 결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산 자료는 홈페이지 재정보고 게시판에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법인보고를 하고,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를 보고했습니다.

수입			지출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기부금	3,245,861	69.6%	사무관리	17,872	3.4%
회비	727,612	13.5%	인도사업	265,658	21.0%
기타수입	443,200	8.1%	필리핀사업	284,495	23.3%
기타수입	0	0.0%	인건비	12,295	1.0%
합계	4,416,673	100.0%	사무용품	79,602	6.3%
			기타	265,666	21.0%
			합계	81,381	6.4%
			사무관리	63,374	4.9%
			인도사업	427,716	3.3%
			필리핀사업	1,177,963	90.0%
			합계	147,377	11.7%
			합계	1,264,438	100.0%
			사무관리	4,115,213	100.0%
총 계	5,379,651	100.0%	총 계	5,379,651	



7. 법륜스님과 함께 떠나는 다문화 가족 봄나들이

JTS 안산다문화센터 주최로 다문화인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행사가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의 안내로 다문화인 86명과 자원봉사자 60명이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숲 속 걷기와 한국 생활에 대한 즉문즉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 유치원 “동화 듣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등게스와리 마을 유치원의 새 교육 과정으로 “동화 듣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4주 동안 동화 한 편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까나홀 마을 유치원 선생님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에 집중하고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대답해요. 다만, 편당 4주는 좀 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새로운 동화를 기다려요.” 라고 전했습니다.



2. 수자타아카데미 22주년 개교 기념식과 마을 잔치

수자타아카데미의 개교 기념식 겸 마을 잔치가 2월 3일 열렸습니다. 자그디스푸르와 두르가푸르 주민들과 지역의 명사 등 1,800명 이상이 참여한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손님들을 위해 밤새 뿌리(튀긴 밀가루 빵)와 사부지(채소 카레), 유미죽, 미타이(당과)를 만들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펼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은 온 가족이 모두 충분히 먹고도 남은 음식 선물을 들고 환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 가야 로터리 클럽과 수자타아카데미의 첫 만남

인도 비하르주 가야 로터리 클럽 회원 15명이 수자타아카데미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교양 교육과 위생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머리빗, 로션, 수건이 든 가방을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선물 덕분인지, 다음 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던지요. 앞으로도 가야 로터리 클럽 회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4. 지바카 병원 마을 별 영유아 신체 측정

2016년 저체중아 지원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 15개 마을 5세 미만 영유아 1,374명을 대상으로 체중과 키를 잰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아이들의 발육 상태를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2~4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측정은 마을별로 3주에 걸쳐 진행했으며, 4월에 있을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아자드비가 마을 우물터와 배수로 수리

아자드비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마을 우물터를 정비하고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수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 주변에 고인 물이 금세 썩어 악취가 나고 모기가 서식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JTS가 시멘트와 기술자,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노동력과 공사비의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물터 정비와 배수로 공사 수리단(공동노동)을 진행했습니다. 고인 물에 지반이 침식되어 금 가고 무너진 기존 우물터를 철거하고 정돈한 다음 배수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6. 재봉반 졸업식

마을 여성들의 소득창출 사업으로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재봉반의 초급 교육생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재봉반 초급 교육생들은 2달의 교육 기간 동안 주 5일 실습 교육을 통해, 아직 좀 부족하더라도 직접 옷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교육생 중 출석률 80% 이상, 졸업 시험을 마친 7명이 졸업증을 받았습니다.



1. 마카파리 고등학교 '사랑의 그린 PC' 40대 전달식

1월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한 '사랑의 그린 PC' 40대 전달식이 다물록 마카파리 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고 컴퓨터를 모아 재생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필리핀 환경관리국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달식에 참석한 다물록 총교 군수님이 직접 컴퓨터를 꺼내 설치한 후 모니터 화면에 “Thank you very much, JTS !!!”를 입력하여,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마카파리 고등학교에서는 이날 전달식이 열린 컴퓨터실에 바랑가이(면 단위 행정단위)가 지원한 컴퓨터 책상을 설치하고 영어와 실과 수업에 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 가가후만 학교 보수 공사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가가후만 학교 보수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민들의 보수공사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조금씩 해결해가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마을에 활기가 돌고, 마을 사람들도 힘을 합쳐 학교 보수를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마늘로 폴티치 학교 준공식

마늘로 폴티치 군의 두 개 학교 준공식을 3월 3일에 진행했습니다. 2013년 11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학교 건축 희망지역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방문하여 점검했습니다. 민수로 부그나, 길랑길랑의 콘솔라시온과 키한아이가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민수로 부그나 지역은 산사태 위험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두 학교는 2015년 5월 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2016년 1월에 키한아이, 2월 에 콘솔라시온 학교를 완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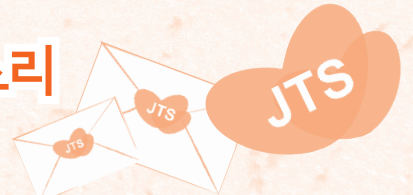
4. JTS 센터 실무자 기숙사 준공식

3월 4일에는 JTS 센터 실무자 기숙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2009년 JTS 농업 기술 훈련 센터가 완공된 이래로 카가만 데 오로에 있던 JTS 사무실이 현재 위치로 옮겨 오게 되었고, 파견 활동가들이 거주할 별도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농업 기술 훈련 센터에서 활동가들이 상주하면 센터를 본래의 목적인 마을 리더와 교사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4년 부지 준비를 시작으로 실무자 기숙사 건축을 시작하였고, 2015년 8월에 완공하고 활동가들이 입주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와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보광, 뿌리앙카, 박중화, 정동표, 김윤미, *박세환, *백은하, *강혜정
필리핀	안병주, 박영일, 원석환, *송치현, *조혜림

후원인의 소리



박지현이에게,
초등학교 입학 축하한다.
네가 지닌 행운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구나.
사랑해 지현아.
- 2016. 3.2 초등학교 입학식날에, 지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

홍병희님의 건강을 발원합니다.
- 어머니 조정숙 -

새해에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병석 -

막내 아이의 생일을 맞아 좋은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 이원제 -

아들 박태영 생일 축하!!!!!!
- 조수연 -

건강 발원합니다.
- 홍병희 -

사랑하는 딸 김주원이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애기들도 모두 주원이처럼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 김성욱 -

사랑하는 아들 라온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 류광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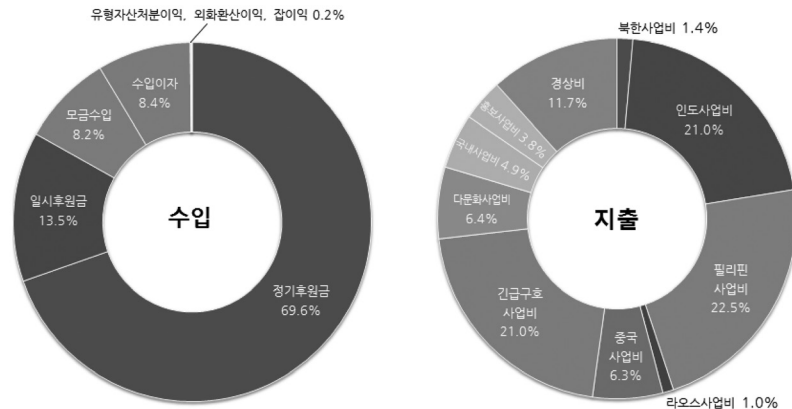
저희 아이 이름으로, 돌 기념으로 작지만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 후원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소중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 최준후 -

교원 임용고시 합격을 감사하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 교육에 잘쓰이기를 바랍니다.
- 양민주 -

죽사 신도님들의 입춘과 정초 기도금 일부입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죽사 -



(사)한국제이티에스 2015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 (2015년 1월 1일~ 12월 31일)



[수입]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후원금	경기후원	3,745,862,699	69.6	
	일시후원	727,611,909	13.5	
모금수입	443,200,482	8.2		
물품후원	0	0.0		
사업비보조금	0	0.0		
수입이자	453,057,302	8.4		
기타수익	9,919,045	0.2	유형자산처분이익 : 2,997,700 외화환산이익 : 2,156,345 잡이익 : 4,765,000	
합계	5,379,651,437	100.0		

[지출]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목적사업비	북한사업비	17,872,378	1.4	
	인도사업비	265,658,230	21.0	동계스와리 교육의료마을개발
	필리핀사업비	284,496,171	22.5	민다나오 학교건축 및 학교 수리
	라오스사업비	12,295,878	1.0	콕농부야 마을 학교건축 마무리
	중국사업비	79,601,977	6.3	취약계층 지원
	긴급구호사업비	265,665,856	21.0	네팔 지진 및 미얀마 홍수 긴급구호
	다문화사업비	81,381,300	6.4	안산다문화센터 개원 및 운영
	국내사업비	62,373,540	4.9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홍보사업비	47,716,190	3.8	소식지 발행 등
	목적사업비 계	1,117,061,520	88.3	
경상비	147,376,659	11.7	사무실 임차료 및 발송비 외	
지출합계	1,264,438,179	100.0		
차기이월금	4,115,213,258		북한사업비 적립금	
합계	5,379,651,437			

특별후원금 (2016. 1. 01. ~ 2016. 2. 29.)

2016년 1월 북한결연

김경미	30,000
김경원	20,000
김명진	10,000
김민정	30,000
김민호	10,000
김승희	30,000
김영균	6,440
김지선	20,000
김창우	20,000
김한숙	50,000
남주미	30,000
박동민	50,000
박원임	10,000
배수정	40,000
백서이	30,000
북한결연	4,000
서현	200,000
석정호	100,000
성영선	30,000
성채현	10,000
신재영	20,000
신종섭	20,000
아이캔들러이 대광고	43,000
안병석	5,000
왕수경	20,750
우선영	3,000
이미란	50,000
이승배	30,000
이요한	30,000
이진일	30,000

이창재	50,000
이향선	10,000
이현희	50,000
임규연	20,000
조민규	50,000
최동넉	10,000
최성국	50,000
하지민	30,000
한성욱	100,000
허대영	10,000
곽봉준	100,000
구영모	100,000
권영남	10,000
김민정	30,000
김성희	50,000
김승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창우	20,000
김현정	10,000
박속희	153,000
배수정	20,000
백서이	30,000
서현	100,000
석정호	100,000
성영선	30,000
성채현	1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안병석	5,000
유소영	10,000
이경희	500,000
이명숙	5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안병석	5,000
윤다미에	50,000
이경희	1,000,000
이승배	20,000

이진일	20,000
인도	4,000
임보경	100,000
최동넉	10,000
최성국	50,000
하지민	20,000
한양순	100,000
필리핀	4,000
하지민	30,000
김창익	100,000
(고)김태녀	2,000,000
031-백명주	5,000
031-백승화	5,000
031-이뿐이	10,000
081-윤성원	50,000
김민정	10,000
김민호	10,000
김승희	30,000
김창우	20,000
김현정	10,000
배수정	20,000
백서이	30,000
서현	100,000
성영선	30,000
성채현	10,000
신재영	10,000
안병석	5,000
유소영	10,000
김경희	5,000
김근령 세종	42,990
김말순	50,000
김명진	50,000
김명희	50,000
김미숙	23,100
김미영	200,000
김미옥	2,000

후원금	금액(원)	비율(%)	비고
JTS 전체사업	30,000		
김민정	10,000		
김민호	10,000		
김승희	50,000		
김애경	10,000		
김언국	400,000		
김유진	10,000		
김윤지	100,000		
김재춘	100,000		
김정심	100,000		
김주빈	50,000		
김진경	20,000		
김진경	20,000		
김창우	40,000		
김창익	600,000		
김태희	50,000		
김현정	20,000		
김효윤	300,000		
김희령	100,000		
김희선	150,000		
김희연	40,000		
깨장1369	411,697		
남미애	300,000		
남상숙	1,000,000		

남주고등학교(2-5반)	420,000
노미선	210,000
노지오	100,000
노홍균	10,000
대구구미중학교(1-1)	
김성수(성지순례)	38,300
대구구미중학교(1-2)	
김세원	300,000
김수연	50,000
김수영	10,000
김수윤	10,000
김승희	50,000
김애경	10,000
김언국	400,000
김윤하	10,000
김유진	10,000
김윤지	100,000
김재춘	100,000
김정심	100,000
김주빈	50,000
김진경	20,000
김진경	20,000
김창우	40,000
김창익	600,000
김태희	50,000
김현정	20,000
김효윤	300,000
김희령	100,000
김희선	150,000
김희연	40,000
깨장1369	411,697
남미애	300,000
남상숙	1,000,000

박상철	100,000	보리수동산	300,000	안산다문화센터	이승만	61,000			
박상훈	60,000	부명중2학년 최미영	118,000	이승배	30,000	정도희	30,000		
박수영	1,000,000	선생님	333,690	이영숙	14,730	정현욱	30,000		
박순례	100,000	부명중3학년 최미영	양기순 서천	이요한	20,000	정혜선	34,350		
박순양	20,000	선생님	76,760	이원제	50,000	조가비	45,000		
박순옥	100,000	불지암	500,000	이응노	34,720	조대영	61,000		
박영기	10,000	서동확	10,000	이정여	5,000	조동찬, 임옥규	100,000		
박원임	10,000	서말선	10,000	이정택	50,000	조민규	50,000		
박윤정	200,000	서민경	5,000	이춘경	1,000,000	조수연	100,000		
박자영	30,000	서병옥	30,650	이현희	30,000	조수현(조용학)	300,000		
박재완	100,000	서영옥	65,050	이혜은	77,120	조영자	20,000		
박재환	80,000	서현	39,000	이혜준	301,030	조재희	100,000		
박정순	50,000	서형섭	5,000	이호용	30,000	주천동수	32,000		
박정심	30,000	서희경	6,000	임근영	300,000	중국에서	30,000		
박정용	1,000,000	석정호	100,000	임란희	100,000	지마트직원외 다수	257,800		
박종혁	7,970	설도윤	유재호(국제구호)	임순말	100,000	차지은	30,000		
박주하	100,000	10,000,000	10,000	임재은	1,000,000	천형준	100,000		
박준자	30,000	성영선	30,000	장명진	100,000	최동녘	20,000		
박지민	100,000	성윤진	100,000	장윤정	10,000	최은아	100,000		
박지양	605,000	성채현	30,000	장현련	10,000	최종학	145,000		
박지영	30,000	손영애	500,000	장형하	200,000	최현구	20,000		
박지한	30,000	손영애	500,000	전수진	50,000	추진속	1,000,000		
박해경	1,000,000	손정남	100,000	전옥수	45,300	플러스4인방	6,000		
박해진	30,000	손현희	5,000	전체사업	1,000	하애란	120,000		
박현진	100,000	송중수	100,000	전춘우	23,960	하지민	50,000		
박화자	10,000	수학의신(서동)	윤태민	30,000	전화영	300,000	하트	50,000	
반미정	30,000	50,000	이경진	100,000	정경아	30,000	한종호	20,000	
배명섭	100,000	신동근	100,000	이귀숙	20,000	정교필	100,000	홍다빈	21,000
배수정	20,000	신명호	30,000	이동순	3,000,000	정수현	40,000	홍석용	150,000
배재윤	100,000	신재영	10,000	이명숙	50,000	정영구	50,000	황영애	10,000
백서이	30,000	신종섭	10,000	이미향	10,000	정영순	1,000,000	황희정	200,000
백성희	110,000	신채원	40,050	이상옥	100,000	정윤점	1,000,000	후원	6,000
백승완	200,000	심백(네팔)	10,000	아선화	10,000	정인규	30,000	이영화	10,000
백중윤	500,000	심을택	30,000	이소령	25000	정자현	100,000	이요한	30,000
베뉴호텔허브점		안병석	10,000	이소영	1,000,000	정재수	1,500,000	이창재	50,000
	88,110	안병주, 김희자	이수동	200,000	정재욱	300,000	이현희	50,000	
변동해	10,000	20,000	이숙	20,000	정도법당	2,396,000			

**2016년 2월
복한결연**

강경림	10,000	김경림	10,000	김성욱	300,000	김지선	20,000
강민준	30,000	김경란	50,000	김성훈	30,000	김현정	10,000
김경미	30,000	김경미	30,000	김승희	30,000	김혜경	48,880
김미라	25,000	김미라	25,000	김유진	20,000	류광열	100,000
김성욱	300,000	김성욱	300,000	김윤홍	50,000	박상원	50,000
김성훈	30,000	김승희	30,000	김정미	500,000	박재군	10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김지선	20,000	백서이	30,000
김유진	30,000	김승희	30,000	김현정	10,000	북한	4,000
김정미	50,000	김유진	20,000	김향진	50,000	서현	200,000
김미라	25,000	김성훈	10,000	김향진	50,000	성영선	30,000
김성훈	1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성채현	30,000
김승희	30,000	강민준	20,000	김향진	50,000	소민경	50,000
김유진	30,000	김성훈	10,000	김현정	10,000	신재영	20,000
김정미	5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신종섭	20,000
김향진	50,000	김유진	20,000	김향진	50,000	안병석	10,000
김현정	20,000	김향진	50,000	김유진	20,000	우정석	100,000
노태곤	300,000	김향진	50,000	김유진	20,000	이다연	20,000
류성화	50,000	김현정	10,000	김향진	50,000	이다연	20,000
명한석	50,000	명한석	50,000	명한석	50,000	이영화	10,000
박상원	50,000	박재군	100,000	박재군	100,000	이요한	30,000
박영현(박영민)	10,000,000	백건구	20,000	백서이	30,000	이창재	50,000
		백서이	30,000	서양숙	20,000	이현희	50,000
박재군	100,000	서양숙	20,000	서양숙	20,000		
박정순	126,000	성영선	30,000	성영선	30,000		
백서이	30,000	성채현	10,000	성채현	30,000		
서양숙	20,000	소진호	50,000	손영수	50,000		
성영선	30,000	손영수	50,000	손원지	10,000		
성채현	30,000	손원지	10,000	신재영	10,000		
손원지	1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송치원	100,000	신종섭	10,000	김광선	50,000		
신재영	10,000	안병석	5,000	김국희	42,000		
신종섭	10,000	안병석	5,000	김남길	100,000		

인도 및 제3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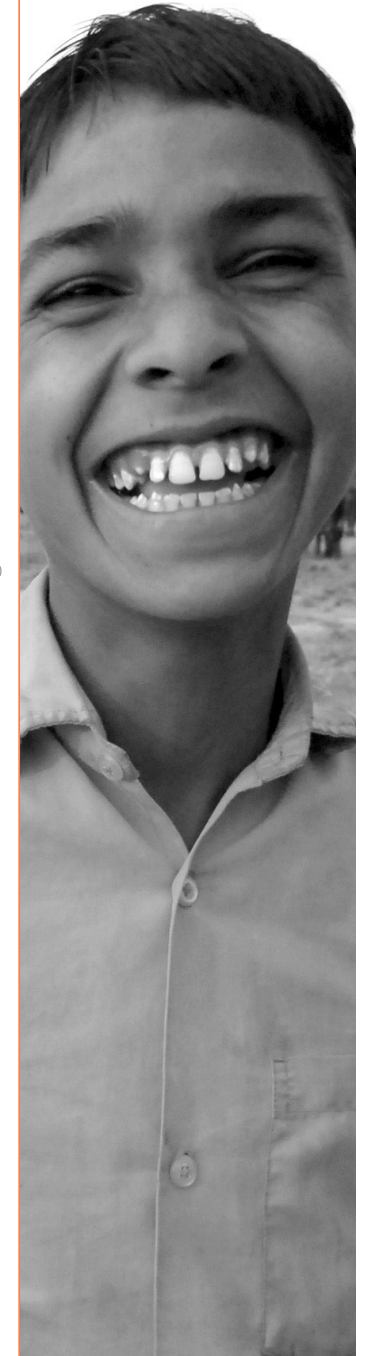
임규연	20,000	신한카드	58741489	노지오(오미라)	김덕원아드님	김진경	20,000	박정숙	50,000				
임재식	100,000		30,000	200,000	300,000	김창익	400000	박정자	10000				
하지민	30,000	안병석	10,000	이영화	10,000	김도윤	304,000	박주하	100,000				
한동규	10,000	이다연	20,000	이진일	20,000	김도희	30,000	박준식	10,000,000				
한성욱	100,000	이다연	20,000	정현욱	20,000	김말숙	10,000	김현아 오즈악국	박준환	50,000			
허대영	10,000	이영실	1,000,000	최준후	50,000	김명숙	10,000	100,000	박칭	10,000			
		이영화	10,000	필리핀	4,000	김미영	300,000	김희연	10,000	박태화	3,000,000		
		이중필	90,000			김미영	200,000	나연우	20000	박해진	30,000		
		이주형	10,000			김미옥	2,000	남공산	2000000	박헌진	100,000		
		이진일	20,000			김미정	150,000	남재환	300,000	박화자	10,000		
		이향선	10,000			김민수	30,000	노하진	10,000	박희숙	100,000		
		인도	4,000			김민철	50,000	노홍균	10,000	반미정	30,000		
		임란희	100,000			081-윤성원	50,000	김민혁	100,000	다문화이미준	10,000		
		최준후	50,000			김보라	1,000,000	김보라	1,000,000	동대문서재명	배종숙	30,000	
						jis국제구호	10,000	김봉생	10,000	100,000	배혜인	0992	
						강경림	10,000	김서원	200,000	류수진	30,000	23,090	
						강민준	20,000	김석현	100,000	마경희	500,000	백미영	100,000
						강승문	3,000	김성순	100,000	명한석	50,000	백서이	10,000
						강승문	5,000	김성훈	10,000	문정신	50,000	백승완	200,000
						강희란	30,000	김수영	10,000	문철	40,000	백아름(김순이)	
						고명신	100,000	김수진	500,000	미안마구호	4,000	1,500,000	
						공연표	100,000	김순이	1,000,000	박경자2809		백영아	45,000
						공윤경	300,000	김승희	50,000	200,000		법성사관음회	
						구자실	10,000	김여진	100,000	박계만	10,000	217,290	
						권교중	200,000	김연옥	100,000	박관자	20000	베뉴호텔허브점	
						권영자	1,000,000	김영선	200000	박규홍	20,000	66,480	
						권영세	50,000	김유진	30,000	박기욱	100,000	변동해	10,000
						금삼승민승필		김은숙	205,000	박동욱 영주	26,880	변영옥	100,000
						김은주	50,000	김은주	50,000	박복동	100,000	변정원	10,000
						김정숙	30,000	김정숙	30,000	박상철	100,000	보승	60,000
						김정화	300,000	김정화	300,000	박순양	20,000	서말선	10,000
						김종년	70,000	김종년	70,000	박영기	10,000	서석곤	500,000
						김종현	40,000	김종현	40,000	박옥경	100,000	서양숙	30,000
						김종희	100,000	김종희	100,000	박원임	10,000	성영선	10,000
						김중명	200,000	김중명	200,000	박윤정	250,000	성윤진	100,000
						김지식	100,000	김지식	100,000	박은숙	50000	성채현	30,000
						김진경	20,000	김진경	20,000	박정수	100,000	송중수	100,000

송준호 10,000	윤태민 30,000	정우석 1,000,000	한미영 100,000
송지민 70,000	이광주 30,000	정윤식 30,000	한양순 30,000
수고하세요 30,000	이귀숙 20,000	정인규 30,000	한영희9149 12,800
신동현 10,000	이나경등레0408	정인희 500,000	한중호 20,000
신명철 200,000	30,000	정지운 100,000	하주미 100,000
신인욱 100,000	이다연 20,000	정태진 70,000	홍단희 20,000
신재영 10,000	이다연 20,000	정현욱 20,000	홍병희 100,000
신종섭 10,000	이도경 20,000	조연화 10,000	홍순형 300,000
신태훈3420 30,000	이미경 100,000	조영자 20,000	환회사 300,000
안동민 22,150	이미향 10,000	조용석 50,000	황영애 10,000
안미숙 302,113	이상숙 44,870	조주환 2,000,000	황윤주 10,000
안병석 15,000	이상한 1,000,000	조춘자 50,000	
안병주, 김희자	이선이 50,000	죽사 1,600,000	
20,000	이수진 50,000	중국에서 30,000	
안창순 20,000	이숙 20,000	차지은 30,000	
양다원 30,000	이연주 50,000	천윤미 30,000	
양민주 300,000	이영숙 20,000	천윤미 30,000	
연준호 30,000	이영화 20,000	청주0406 10,000	
오윤경 20,000	이윤희 100,000	청주9847 20,000	
옥탑방왕세자갤러리	이정여 5,000	최경희 31,000	
22,500	이진승 30,000	최경희 29,000	
우성배 50,000	이채원 100,000	최동녘 50,000	
우정민 50,000	이형은 1,000,000	최수환 100,000	
우정석 100,000	임미순 50,000	최재순 피주 21,240	
원철웅 30,000	임영일 300,000	최정원 8563	
원철웅 30,000	장우진 10,580	27,610	
유은영 30,730	장원숙 10,000	최정자특별후원금	
유정자 140,000	장은숙 70,000	50,000	
윤경미 30,000	장현련 10,000	최제익 20,000	
윤기영 5117	전순연 1,000,000	탐진최광강수	
100,000	전우진 10,000	100,000	
윤미경 100,000	전일중 71,350	팡팡 30,000	
윤미라 500,000	전평환 200,000	포항덕산강쌍임	
윤선희 100,000	정경아 30,000	40,000	
윤여훈 50,000	정금례 50,000	하우택 100,000	
윤종철 2,000,000	정미자 30,000	한그루공방(김홍임)	
윤지수 50,000	정백기 10,000,000	450,000	

해외JTS 후원금 (2016. 1. 01. ~ 2016. 2. 29.)

미 국 J T S 2016년 1월

조속자 \$100.00	김은영 \$50.00	\$1,000.00
최만성 \$20.00	김정임 \$500.00	하주홍, 하혜숙
최용호 \$100.00	김학노 \$50.00	\$40.00
크리스 배 \$100.00	노유경 \$50.00	한복희 \$37.84
토론토법당	도성희 \$10,000.00	한정희 \$100.00
\$1,630.36	무주상 \$5.00	하정연 \$120.00
김미숙, 어문자, 김영옥	무주상 \$1.00	하정연 \$300.00
\$90.00	박경배 \$180.00	홍기윤 \$31.00
김민철 \$100.00	박승용 \$30.00	황광성/김점숙
김윤진 \$100.00	박현수 \$50.00	\$500.00
김지은(위털루)	배염 \$100.00	ARDEN LEA
\$200.00	서성애 \$50.00	\$66.42
김훈 \$300.00	송명석 \$19.00	Benevity \$100.00
노유경 \$50.00	위털루불대생	DOLORES NOEL
노향숙(오티와)	\$100.00	\$245.00
\$100.00	KYUNG J KIM	유승목 \$20.00
뉴욕법당 \$10.00	\$10.00	이노숙 \$100.00
무주상 \$5.00	Lauren Carre	이동영 \$400.00
무주상 \$100.00	\$100.00	이성숙 \$100.00
무주상 \$1,000.00	SOON JIN	이성숙 \$100.00
무주상 \$55.66	SCHEFFEL \$30.00	이영국 \$140.00
문화경 \$50.00		이주희 \$100.00
박경배 \$120.00	미 국 J T S	이지원 \$50.00
박승용 \$30.00	2016년 2월	이진아 \$100.00
백희 \$10.00		이한나 \$20.00
신명순 \$100.00	권화정 \$100.00	임선희 \$100.00
워싱턴법당과	권화정 \$100.00	장인 \$300.00
버지니아법회	김명 \$50.00	장인 \$300.00
\$237.25	김명례 \$83.00	전은영 \$1,000.00
유승목 \$20.00	김미경 \$100.00	정수길/홍희선
유정희 \$1,000.00	김부연 \$1,000.00	\$50.00
임국희 \$100.00	김석준 \$53.02	\$10,000.00
장영경 \$50.00	김성심 \$8.86	정영주 \$20.00
정수길/홍희선	김소연 \$5,000.00	정제니 \$100.00
\$50.00	김영식 \$600.00	조경은 \$60.00
정지아 \$50.00	김예진 \$100.00	조경은 \$60.00
		하보경/김완준



나눔저금통 현황 (2016. 1. 01. ~ 2016. 2. 29.)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이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동
남강운 22,050

강서
강서법당 20,000 강서법당 13,720 강서법당 22,000

경기광주
경기광주법당 50,680

경주
경주법당 8,410 경주법당 24,900 경주법당 22,500 경주법당 50,000

계룡
계룡법당 128,590 계룡법당 213,650

관평
오경희3개 94,010 조정숙 14,390 표미숙 19,760

광주
광주법당 175,280

구리
무명 17,420

구미
구미법당 119,990 구미법당 97,160 김정화 73,000

군산
군산법당 50,000

기장
기장법당 93,540 기장법당 115,000 기장법당 219,000

기흥
기흥법당 23,500

김포
김포법당 151,300

내서
내서법당 244,530

노원
노원법당 185,450 노원법당 230,750 노원법당 93,000

당진
오동원 29,810 정희숙 33,550 정희숙 48,660

대구
김현숙 31,590 노현승 23,310 대구법당 191,370 무명 23,640 무명18,360 신미경 20,100 차경순 30,260 하지연 18,740 ok포인트마트 25,320

대연
대연법당 399,890

대전
김누리 22,240 김두레 24,860 김선옥 25,820 동춘환의원 149,860 무명 15,380 박정미 24,670 송정훈, 장유선 31,220 우삼이 21,700 윤영희 31,240 이명희 9,010 임철성 18,060 조영민 25,300

덕양
덕양법당 59,140 덕양법당 76,180

도봉
최성규 22,910

동래
강화자 18,400 김오순 22,100 동래법당 366,160 무명 63,550 박성호 35,110 신혜숙 26,360 원선호 19,360 윤선희 18,040 이경임 23,050 이상주 21,560 이애리 24,340 이정순 18,860 장금자 21,180 최인정 27,790 허준 21,460

마산
마산법당 112,160 마산법당 34,430 부산어묵 8,130

마포
마포법당 73,440

목포
목포법당 78,940

문경
고재수 34,030 안복수 20,400

방어
방어법당 289,620

부천
김향례 27,780

부평
김성욱 45,380

분당
분당법당 241,200

사하
관정숙 19,690 김기음 29,700 김기음 27,400 김기음 1,120 김사문28,480 김사문 37,000 무명 37,200 무명 18,920 박종석 19,050 사하법당 30,850 신금향 15,350 신금향 55000 이도경 8,240

서면
관계정 15,750 김복예 12,360 김은정 30,460 무명 34,590 백재찬 221,530 오지원 21,450 이명희 50,160 이선희 20,480 이현숙 22,310 전재영 61,100 허덕순 8,200

서천
양기순 40,440

서초
강송임 22,320 고은선 26,700 길창범 37,530 김기범 20,400 김도은 12,230 김민서 20,340 김정희 35,000 무명 42,100 무명24개 608,740 무명 5개 125,920 무명7개 198,800 문지원 26,450 박문구 84,060 박문구 178,020 박문구 50,930 박수자 14,640 배주연 21,860 신영애 16,330 안성우 13,010 옥경 31,790 유승후 30,850 이상미 19,000 이은주 18,180 이민순 20,100 이재숙 19,220 이재현 22,330 이하연 13,440 임경애 33,500 정기현 36,200 최병호신경정신과 29,900 최은를 25,770 홍상진 34,440

서현
서현법당 153,679

성동
성동법당 32,020 성동법당 130,170

성서
성서법당 98,430

세종
김근령 42,990 박종혁 7,970 세종법당 20,000 신은주 41,700

송파
김영주 53,410

송현
송현법당 118,250 송현법당 19,490

수정
수정법당 155,790 수정법당 57,260

안산
안산법당 20,230

안양
곽현정 31,500 안경희 25,110 이종영 23,810

양덕
양덕법당 158,550

양산
이옥희 17,690

양천
양천법당 254,320

영주
경일카 16,500 박동욱 26,880 전춘우 23,960

왜관
왜관법당 32,530

용인
용인법당 204,940

울산
김봉헌 22,090 김성중 17,670 김시형 18,270 무명 21,520 무명 20,570 무명 14,000 무명 6,030 문미경 24,100 박미성 29,380 박지현 6,250 서동민 34,250 서동희 31,430 신두환 63,860 심숙희 40,000 안석현 34,870 이미영 17,470 이영욱 19,820 이민주 28,090 정옥채 11,900 최요희 33,180 플라워미술학원 32,260

원주
김경숙 101,800 유연희 17,110 전선희 35,950

한민자 37,000

의정부
의정부법당 27,790

인천
인천법당 19,990

일산
일산법당 212,080 일산법당 165,980

제주
제주법당 94,360 제주법당 34,590

중앙
무명 8,630 정민숙 26,000 정해숙 66,500

진해
진해법당 86,260

창원
창원법당 27,760

청주
청주법당 94,070

태전
김현숙 37,020 무명 21,530 무명 10,410 무명 42,290 이지원6개 53,720 이현우 17,430 최미숙 17,690

통영
통영법당 96,670

파주
최재순 21,240

해운대
해운대법당 164,620

화봉
화봉법당 199,050

기타
15학년동문고3 63,140 강대영 14,290 김영균 6,440 돼지저금통 42,670 배혜인 23,090 유은영 30,730 이상숙 44,870 이영숙 14,730 장우진 10,580 전일중 71,350 청돼지저금통 314,050 최정원 27,610 포항수협대이동지점 13,800 한영희 12,800 흥디빈 21,000 황선미 100,000

거리모금 현황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02월 29일)

강동 89,290 강서 86,100 강화 78,000 거제 878,330 경기광주 153,430 경산 292,130 광주 615,880 계룡 63,500 관악 354,800 광명 210,800 구로 139,930 구미 874,090 권선82,500 기흥 283,500 김천 305,950 김포 185,180 남양주 58,000 내서 61,000 노원476,220 달성 71,460 당진 58,150 대구 1,863,500 대전 366,870 덕산 387,590 덕양 120,160 도봉 314,130 동래 2,436,210 동작 54,380 마산 328,800 마포 82,340 목포173,970 문경 448,800 방어 221,140 부천 301,720 분당 277,600 사천 66,050 사하 253,910 서대문 466,570 서면 1,363,450 서초 636,540 성동 248,010 세종 77,410 송도 238,900 송파 282,790 송현 609,980 수원 177,700 수정 1,213,420 안동 176,800 안산 457,890 안산센터 178,900 안양 216,070 양덕 693,060 양산 386,060 양천 250,950 양평303,670 영주 214,640 영천 216,270 영통 206,300 왜관 70,290 용인 601,970 울산 218,500 원주 115,200 은평 105,500 의정부 116,030 인천 167,810 일산 178,050 임재식부스(문경대전총청지부) 1,620,000 전주 116,750 제주 121,670 중앙 170,610 진주 963,390 진해 189,840 창원 680,950 처인 424,880 천안 621,350 태전 181,370 파주 206,310 평택 49,000 해운대 2,004,910 흥성 123,670 화명 185,21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